Q5 건축물 해체 현장에서 해체 감리자는 무슨 일을 하나요?

해체 감리자는 현장의 작업순서, 공법, 해체 계획서와 상이하지 않게 작업을 하는지 확인, 현장 붕괴 및 안전, 추락방지 대책 등 해체 현장에서 전반적인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만약 해체작업이 안전하게 수행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때는 시정 또는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사고는 감리자가 현장에 없을 때 나타났는데요, 과거에는 해체 감리자가 현장에 상주하지 않는 비상주 감리제도였지만, 2021년부터는 상주 감리제도가 도입되어 현장 안전을 보다 강화했습니다.

해체 감리자는 일정자격을 갖춘 건설 기술자가 교육을 이수한 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면 되는데요, 관할 지자체는 신청자의 명부를 만들어 해체공사 신고가 접수될 때 추첨제 또는 순번제로 감리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Q6 선진국에서는 해체 현장의 사고 방지를 위해 어떻게 하고 있나요?

체계적인 건설현장 관리 감독으로 정평이 난 영국에서는 1992년 건설안전법(CDM, Construction Design and Management regulation)을 제정했습니다. 영국 CDM은 무엇보다 발주자인 건축주의 책무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건축주는 안전에 역량이 있는 관리자를 직접 지명하고 직접 공사를 신고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어 공사 중 사고가 났을 때 그 책임을 건축주가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건축물 관리법에는 건축주가 관리자를 선임하기만 하면 모든 책임에서 빗겨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건축주가 관리자를 정해서 위임을 하더라도 관리자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건축주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영국에서는 건축주의 책임을 강조하는 만큼 건설현장 안전사고 발생률도 현재 우리나라에 비해 1/20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